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한다.

우리들 교직원은 평화롭게 살며 일할 권리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언어와 문화 연구 그리고 교육을 통해 외국인들과 마음을 나누며, 일본인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평화에 공헌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해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각, 전문가의 지혜와 경험을 결집하고, 창조적인 도전을 계속 해야만 한다.

헌법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들 국민의 것이다. 우리들은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고, 정부가 각의결정이라는 “밀실”에서 헌법해석을 변경한 점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집단적 자위권의 각의 결정에 반대한다.

2014. 7. 2. 오사카대학미노캠퍼스교직원조합 집행위원 일동.